

이원택, '도민주권 참여 선대위'로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 확정 후 기자회견... "전북 대전환 시작"

"공개모집 방식으로 운영... 열린 정치 플랫폼 성격"

체감경제·첨단 미래산업 비전 제시... 통합 메시지도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원택 국회의원이 '도민주권'을 전면에 내세운 선거 전략을 공식화하며 본선 승리를 향한 행보에 본격 착수했다.

이 후보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주권 참여 선 거대책위원회'를 통해 전북의 대전환을 시작하겠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후보 확정 이후의 첫 일정이 아니라, 향후 전북 도정 운영 방향과 정치 철학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당내 경선에서 안호영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직후 열린 공식 메시지라는 점에서, 통합과 확장, 그리고 민생 중심 전략이 동시에 강조됐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가 가장 먼저 내세운 핵심 키워드는 '도민주권'이다. 그는 "도지사 권한은 특정 정치인의 소유가 아닌 도민이 잠시 맡긴 공적 권력"이라며 기존의 정치 중심 선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로 '도민주권 참여 선대위' 구성을 제시했다. 이는 일반적인 캠프 중심 선대위와 달리,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

을 제안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구조다.

공개 모집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생산하는 '열린 정치 플랫폼' 성격을 갖는다.

이 후보는 "캠프의 문을 활짝 열어 도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전북의 미래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선거 전략을 넘어 향후 도정 운영까지 연결되는 '참여형 거버넌스' 모델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정책 비전으로 '체감경제'와 '첨단 미래산업'을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우선 민생 분야에서는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그는 "도민의 장바구니 물가와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 경제 안정과 생활 밀착형 정책에 방점을 둔 접근이다.

동시에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는 전북의 산업 구조를 첨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에너지 산업과 피지컬 AI 등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 유출 문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원택 국회의원이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주권 참여 선대위'를 통해 전북의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해결과 연계해 "전북에서도 충분히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략은 '낭정의 삶을 살리는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산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상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와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권정부' 철학을 전북에 맞게 구현해 '도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며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정합성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정책 동력을 전북 발전으로 연결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지에서도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아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전북의 자존심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의 통합 메시지도 강하게 제시했다.

이 후보는 김광영 현 도지사과 안호영 의원, 정현을 익산시장 등 경쟁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정책과 비전은 모두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 후보와 지지자들의 뜻을 선대위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정책으로 하나 되고 승리로 결속하는 '용광로 원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 말미에서 도민과 당원들에게 강한 결집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우리는 하나일 때 승리했고, 하나일 때 세상을 바꿨다"며 "오늘의 진통을 전북 대전환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더 넓은 도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민이 만들고 도민이 이끄는 선거를 통해 '미래첨단 전북'과 '민생 체감 경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본선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결국 이번 선거는 '도민주권'이라는 가치가 실제 정치와 행정에서 얼마나 구현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중앙선관위원장

14~15일 전북 방문

지선 등 준비상황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중앙선관위원장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전북 지역을 방문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점 추진정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선거업무 추진 상황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노태와 중앙선관위원장은 14일 전북선관위 15일에는 군산시선관위를 찾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 관리상황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 상황 △선거 거운동기구 신고·신청 현황 △공정선거감판단 운영 준비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혁신당 조국 대표, 고창서

유기상 군수 후보 지원사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1일 전북 고창군을 찾아 유기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전북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조 대표는 축사를 통해 유 후보의 행정 경험과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유 후보는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행정 전문가로, 전북 예산 6조 시대를 연 핵심 인물"이라며 "전주 한옥마을과 전주국립영화제 등을 기획한 안목과 추진력이 이제 고창 발전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표는 현 고창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뽕바리기와 축근 의혹으로 얼룩진 지방자치의 퇴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고창의 정치 개혁과 국민 자부심 회복을 이끌 책임지는 유기상 후보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후보는 비전 실현을 위해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직접 뛰겠다"며 "고창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대한민국 정치 혁신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창을 민주주의의 성지로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이며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이만호 기자 · 고창=김영식기자

조용식 익산시장 결선 후보

"언론 오보, 선거 공정성 훼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에서 최정호 후보와 결선을 치르게 된 조용식 예비후보가 결선 진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히는 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용식 후보는 13일 오전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선에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결선 진출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익산신문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예비경선 득표율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선 과정에서는 정당의 공식 발표 외에 어떠한 득표율이나 세부 수치도 외부에 공개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경위와 근거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허위사실 유포 여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익산=이재춘기자

민주전주시장 경선... 우범기·조지훈 결선 진출

'정책 수용' vs '무능 심판' 맞대결

우범기 '국 후보 정책 계승' · 조지훈 '지난 4년 실패 심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전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우범기 예비후보와 조지훈 예비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하며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다.

두 후보는 13일 각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탈락한 국주영은 후보의 지지층 흡수와 현 시정에 대한 평가를 두고 선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3차 경선 결과 결선 진출이 확정되자 '통합'과 '연속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우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전주 대변역을 향한 시민과 당원의 열연 덕분에 결선에 나선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함께 경쟁했던 국주영은 후보에게 깊은 위로를 건넨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특히 "유리천장을 깨는 도전을 보여준 국 후보의 세심한 정책들을 온전히 수용해 시정에 녹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을

포용해 결선에서 압도적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선 8기에서 세운 변화의 뼈대 위에서 민선 9기 전주 대변역을 확실히 완성하겠다"며 '일 할 줄 아는 후보'임을 재차 부각했다.

반면 조지훈 예비후보는 현 시정을 '실패로 규정하며 강력한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조 후보는 결선 투표를 "무능과 거짓으로 점철된 지난 4년을 심판하고 전주의 존엄을 회복하는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지난 4년의 시정은 전국 최악의 빚 폭탄과 인구 유출로 파산했다"며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기록 등을 언급하며 도덕성과 리더십의 결여를 직격했다.

조 후보는 전주를 아시아 5대 문화산업 도시와 피지컬 AI 특별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시민의 말씀을 귀하게 듣는 시장

이 되어 진짜 변명을 증명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경선은 당초 우범기·조지훈 국주영은 3인 체제로 치러졌으나, 국 후보가 탈락함에 따라 우 후보와 조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우범기 후보는 국주영은 후보의 정책 계승을 통한 '원팀' 기조와 대변역의 '완성'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조지훈 후보는 현 시정의 과오를 부각하는 '정권 심판'과 새로운 변화를 통한 '존엄 회복'을 필승 카드로 꺼내 들었다.

두 후보 중 누가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본선에 진출할지는 오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결선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당원과 시민들의 선택이 '시장의 연속성을 위한 안정적 완성'과 '민적 쇄신' 중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공정성 무너진 경선... 재감찰 시행을"

'도지사 출마' 민주 안호영 의원, 국회서 단식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섰던 안호영 후보가 경선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국회에서 8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당의 즉각적인 윤리 재감찰과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안 후보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이원택 후보와 경쟁한 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당의 감찰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본청에서 단식 농성을 3일째 이어가며 "공정한 재감찰이 시작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안 후보는 12일 밤 밝힌 입장문에서 "이번 경선은 단순한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이 무너진 경선"이라며

"경선 직전 제기된 의혹은 후보 개인을 넘어 경선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었지만, 조사 방식부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도지사 관련 사안은 현장조사가 진행된 반면 이원택 후보 관련 사안은 전화 조사로 마무리됐다"며 "조사 기준이 달라지는 점 자체가 이미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보도와 관계자 증언을 통해 1차 감찰의 부실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해당 결과와 해명이 경선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과정이 개표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창을 민주주의의 성지로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이며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반도체 · 군산 전기차로 산업 혁신"

기본소득당, 전북 대전환 1호 공약 발표

기본소득당이 전북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 경제 재편에 나섰다.

홍인근 기본소득당 대표이자 호남선대위원장은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산업혁신 대전환' 구상을 발표했다.

홍 대표는 이날 발표에서 전북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전북의 2024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798만 원으로 5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제조업 비중도 21%에 머물러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산업혁신과 기본소득을 결합해 도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공약은 세 가지다. 첫째, 새만금을 국가 반도체 특구로 지정하는 방

안이다. 둘째, 군산에 연간 20만 대 생산 규모의 전기차 기업을 유치해 미래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이다. 셋째, 2조 원 규모의 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해 공공자본 투자와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편 홍 대표는 이날 군산 수산물종 합센터 상인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경제 현장 행보에 나섰다. 다음 날에는 군산 사회연대 경제 현장과 전주 의료협동조합 등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기본소득당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 도의원 후보 공천도 진행 중이며, 입실에는 김철호 후보를, 군산에는 고명석 후보를 공천할 예정이다.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1명을 공천하며 총 3명을 공천해 세 확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 예술인 뉴딜 미래포럼 "의도적 가짜뉴스 규탄"

전북 예술인 뉴딜 미래포럼(운영위원장 김관희) 회원 10여명은 1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언론 보도를 '의도적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관희 운영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예술인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측은 전북의 한 인터넷 신문이 지난 4월 9일 인터넷 보도를 통해 이원택 국회의원이 지역 예술인 행사 식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보도이자, 예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악의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포럼 측은 문제의 행사는 지난 1월 20일 예술인들의 고충을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원택 의원은 정책 설명과 질의응답

만 진행한 뒤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한옥마을 인근 도립미술관 분관 설치 등 3가지 정책이 제안됐으며, 관련 회의 자료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사비와 관련해 "참석자 약 50명 규모로 진행됐으며, 1인당 1만5천 원 수준의 전골 식사였다"며 "일부 참석자들은 각자 비용을 부담하려 했으나, 한 참석자가 이를 대신 결제했고 영수증도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